

올 하반기 돼지고기 시장 전망

- 수입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이 권 재 상무
(주)세중

작년부터 글로벌 돼지고기 시장의 큰 변화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중국의 돼지고기 생산이 2018년에 비해 약 30% 감소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2020년 수입량이 2018년에 비해 약 3배가량 증가하면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견인하였다. 또한 2019년 미국의 곡물 생산량은 2018년에 비해 대두는 약 20% 감소했고, 옥수수는 약 5% 감소하여 생산비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의 대중국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5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사상 최대 물량을 수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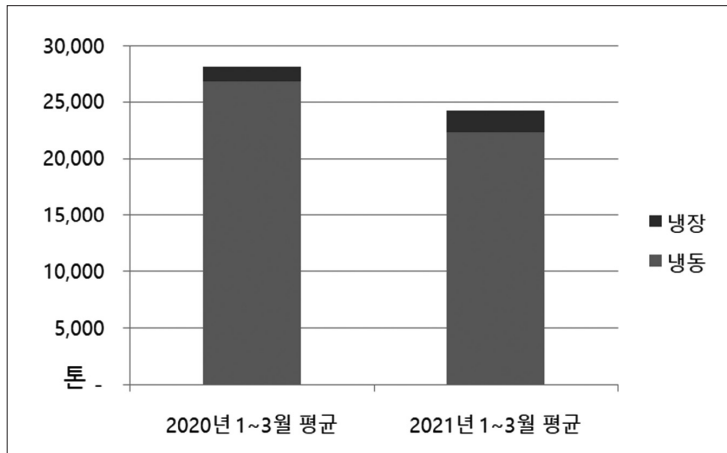
1. 올해 1/4분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제가격 상승으로 13.7% 감소

2020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영향을 받아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독일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해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이 중단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수입 중단으로 인해 가수요 등이 발생하여 급등했으며, 수입 오퍼가

(표 1) 국내 돈육 수입 물량

(단위: 톤, %)

기간	냉동	냉장	합계
2020년 1~3월 평균	26,765	1,306	28,071
2020년 월 평균	24,308	1,564	25,872
2021년 1~3월 평균	22,253	1,971	24,224
대비기간 성장률	-16.9	50.9	-13.7



(그림 1) 돼지고기 수입량 비교

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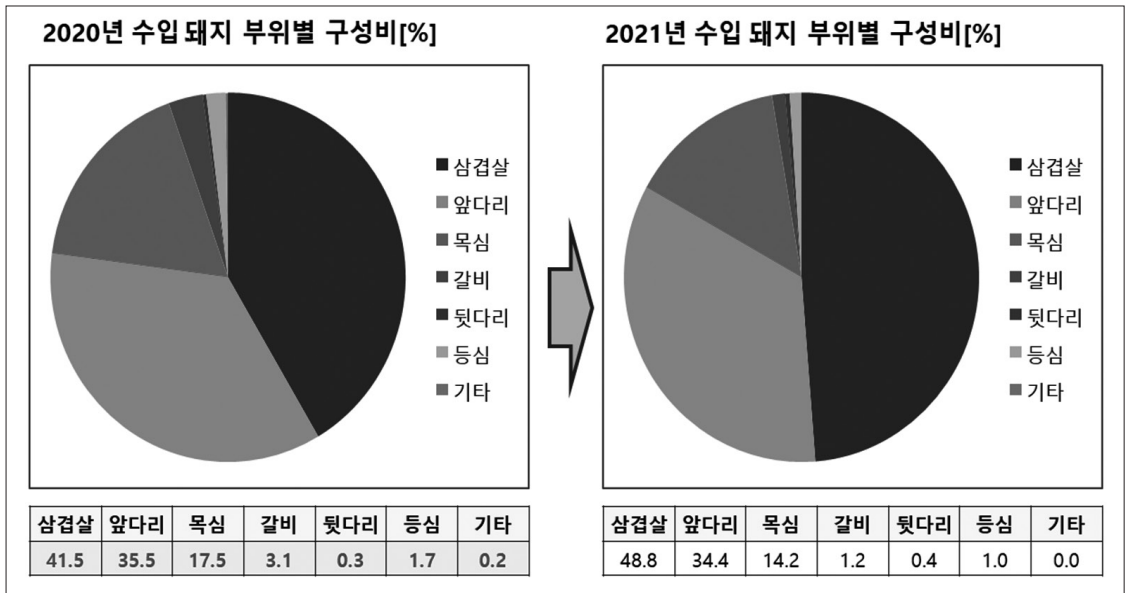
올해 1/4분기 국내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냉동은 약 17% 감소하고, 냉장은 약 50% 증가하였으며,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은 약 14% 정도 감소하였다.

특이한 점은 냉장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50% 이상의 증가

를 보이며, 전체 수입 돼지고기 물량의 8%를 상회하였다. 냉장 돼지고기는 대형할인점, 중소형 슈퍼를 중심으로 판매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꾸준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데 매력이 있어 보인다. 당분간은 냉장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 돼지고기와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돈가 상승으로 삼겹살 수입 비중 현저히 증가

올해 1/4분기 부위별 수입량을 보면 전년과 대비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다. 수입 물량 중 삼겹살의 구성비가 41.5%에서 48.8%로 7.3% 증가했다. 전체 수입량이 줄어들었지만 삼겹살은 5% 정도 수입 물량이 증가했다. 반면 갈비, 뒷다리, 등심 등 기타 부위의 구성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전년 5.5% 정도였던 구성비가 2.6%로 줄어들어 거의 의미 없는 양으로 변화했다. 수입가격의 급등으로 말미암아 삼겹살의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면서 갈비, 뒷다리, 등심 등의 부위는 거의 국내산으로 대체되는 결과로 이러한 현상은 수입 오퍼가격이 고가로 형성될 경우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작년과 올해 수입돼지 부위별 구성비 비교

(표 2)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량 비교

구분		덴마크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칠레	프랑스	오스트리아	기타	계
2020년 1~3월	수입량(톤)	363	6,768	36,302	3,387	5,967	670	2,218	28,539	84,214
	구성비	0.4	8.0	43.1	4.0	7.1	0.8	2.6	33.9	
2021년 1~3월	수입량(톤)	4,068	6,428	30,821	4,592	4,791	1,924	4,746	15,304	72,674
	구성비	5.6	8.8	42.4	6.3	6.6	2.6	6.5	21.1	

3. 독일산 수입 금지로 유럽국가의 수입 증가

국가별 수입량은 독일의 ASF 여파로 인해 북미, 남미 국가에서 수입한 물량은 유지된 반면,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가의 수입은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작년 하반기에 감소하였다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회복되고 있으며,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가의 수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돼지고기 수입의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올해 상반기 시장은 경기 회복으로 인하여 자국 내 소매 판매 증가로 인한 내수 요인과 대중국 수출 물량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글로벌 돼지고기 시장은 상반기에 비해서 가격은 소폭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육 기반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모돈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안정화되고, 사료 기반인 옥수수과 대두의 생산량이 2020년 소폭 증가하여 사육에 필요한 제반 요인들은 모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4. 하반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지만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

올해 하반기에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18년에 비해서는 약 10% 내외의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생산량은 사육기반 확충으로 작년에 비해 15% 정도의 생산 증가가 예상되어 수입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2018년의 생산량에 비해 많은 양이 부족하여 수입 비중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하반기 가격은 상반기에 비해 안정 또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

올해 하반기 글로벌 돼지고기 시장은 여전히 고공 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상반기에 비해서 가격은 소폭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육 기반도 안정될 것으로 보이며, 모돈두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안정화되고, 사료 기반인 옥수수과 대두의 생산량이 2020년 소폭 증가하여 사육에 필요한 제반 요인들은 모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수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미국의 경우 돼지고기 일인당 소비량이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부양책으로 작용했던 양적완화 정책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서 미국시장은 하반기에 가서는 가격의 약보합 또는 약한 하락이 예상된다. 국내시장도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수요가 안정화되고, 수입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사항

상기 원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글쓴이 메일로 문의바랍니다.
글쓴이 e-mail : bum5191@naver.com